

광주 버스노조 복지기금으로 6년간 15억원 받아

# 매년 2억6천만원 행진 노조 어디 썼는지도 모르는 광주시

준공영제 이후 수백억 혈세 투입

기금집행 감사할 장치 마련 시급

광주시내버스가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혈세로 메우는 상황인데도, 노조원들은 버스 광고 수익의 일부를 복지기금 명목으로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업체는 운전원 인건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시민 세금으로 충당 해가는 실정에서 노조는 사측과 합의를 내세우며 법적 근거도 없는 복지기금을 수익원칙 위반과 박 정기는 등 이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버스노조는 수 년 간 복지기금을 받고도 기금집행에 대한 감사조차 받지 않아 이를 감사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버스노조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기구인 '광주시내버스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수익금위원회)로부터 매년 노조복지기금 명목으로 평균 2억6000만 원씩, 6년간 15억6000만 원 가량을 보조받았다.

노조복지기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원은 지난 2012년 서울시 감사에서 노조지원금 등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은 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법엔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수익금위원회'는 광주시 공무원(국장 및 과장)·시내버스 노사 대표·대학 교수·회계사·노무사·시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 재정지원금·버스 요금 수익·시내

노조복지기금 입장 보니	
<b>수익금위원회</b>	예산항목 정해진 것 아니지만 외부광고 수익금서 일부 떼 지급
<b>버스노조</b>	각 지부별 사용계획서 심사해 경료효친·장학금 등으로 사용
<b>광주시</b>	노조측 공개 안해 사용처 몰라 보조금 성격 아니라 감사도 못해

버스 외부광고 수익 등을 총괄 관리해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광주시는 여기에서 정해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해왔다. 연도별로 ▲2007년 196억원 ▲2008년 293억원 ▲2009년 288억원 ▲2010년 352억원 ▲2011년 301억원 ▲2012년 350억원 등 모두 178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결국, 버스업체가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광고 수익의 일부를 노조 복지 증진

위한 노조복지기금 명목으로 선심쓰듯 내놓고 부족한 인건비 등 한 해 평균 296억원을 광주시민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해당 기금이 실제 정규직의 복리 증진이나 근무환경 개선 등에 쓰여졌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조복지기금을 지원받으면 각 지부별로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심사를 통해 경료효친·차녀 장학금 명목 등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수익금위원회 측은 관례대로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에서 일부를 떼낸 뒤 재정지원금(인건비·연료비·임차료·기타원가 등) 중 기타원가에 예산을 반영해 기금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버스노조 측이) 기금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알 수가 없다"면서 "보조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도 없다. 노조 복지도 쓴다고 하는데, 경찰이 나서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

/백희준 수습기자 bhj@

## 버스 파업 나흘째 노사 협상 결렬

파업 나흘째인 26일 버스노조는 광주시 중재로 사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노조측의 임금 5.29%(15만6000원) 인상에 맞서 3%(9만5000원)를 고수하는 사측이 팽팽

히 대립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광주시 중재안은 3.62%(11만5000원).

이날 현재 시내버스 운행대수는 930대 중 785대(84.4%)다. 시는 양측이 양보없는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교육부, 광주시교육청 엄중 경고

박대통령 퇴진 글 올린

교사 확인 요구 거부에

‘교사선언’ 전원 고발도

교육부가 광주시교육청에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글을 올린 교사를 확인하라는 요구를 광주시교육청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행정질서 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26일 교사선언 참여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사선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달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43명의 교사가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글'을 올렸고, 이후 2차, 3차 선언으로 이어졌다. 1차에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이 참여했다. 1, 2차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선언에도 참여해 참여자는 총 200명가량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를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단, 징계처분하기로 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동명인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자들이 교사선언에 참여했는지 확인

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사선언 명단 중 이름이 같은 72명의 교사가 광주지역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 교사가 실제로 교사선언에 참여했는지 파악하지 않았으며 교육부에도 관련 내용을 조사할 뜻이 없음을 전달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요구에 따르지 않자 교육부는 이날 "행정 질서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와 전북 2곳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조사에 따른 뒤 '확인이 불가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욱기자 jwpark@



어린이집 앞마당 신나는 물놀이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된 26일, 광주 북구 중흥어린이집원생들이 어린이집 앞 마당에 마련된 간이 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살인범에 잇단 중형... 단호해진 광주고법

“생명범죄 감형 기대 하지마”

1심보다 높은 형량 잇단 선고

광주고등법원 형사 재판부가 1심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잇따라 선고하면서 항소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들을 떨게 하고 있다.

1심 판결 뒤 피해자와 합의에 적극 나서는가 하면, 뒤늦게 자백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피고인들의 행태 등을 감안, 형량을 일부 깎아주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기존 항소심 판결 '경향'이 뒤집어지면서다. 해당 재판부는 올 해 초 '불구속 재판'을 받는 징역형 피고인' 들에 대한 항소심 중 해당 피고인들을 잇따라 '법정 구속'하기도 해 주목을 받았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6일 첫머리를 안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 주인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장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양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6시 20분께 구례군 한 편의점에서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앞서, 사망보험금(4억3000만원 상당)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한 뒤 바다에 버린, 이른바 일명 백야대교 살인 사건의 주범 신모(36)씨 등에 대한 항소

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피해자를 피보혐자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 계약을 변경한 뒤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생명은 무언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절대적 가치임에도, 피해자 생명을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신씨 측은 지난해 4월 23일 밤부터 이틀 날 새벽 사이 광양시 식당에서 마걸리에 수면 상복제를 넣고 피해자가 마신 뒤 정신을 잃자 목 졸라 살해, 여수 백야대교 야

래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지난 19일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피고인(42)에 대해 원심(징역 15년)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원심 판결보다 형량을 크게 높인 판결이 잇따르면서 항소심 판결을 앞둔 피고인들은 바짝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형사 합의 사건 항소심을 모두 도맡는 유일한 재판부인 탓에 해당 재판부를 피해가려는 일부 피고인들의 '꼼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다.

벌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 판단의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재판부마다 너무 큰 격차의 선고는 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탈모치료제 해외 공동구매 카페 열고 1000만원 먹튀



탈모 치료약 해외 공동구매를 대행하는 인터넷 카페를 열어 수

십명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약값만 가로챈 20대가 사기 혐의로 경찰서행. ○2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25)씨 등 2명은 지난 2월 11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인디안엔젤'이라는 카페를 열고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탈모약을 구매하면 30%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꼬드겨 대구에 사는 지모(40)씨 등 회원 60명을 상대로 최근까지 1200여 만원을 송금 받은 뒤 종적을 감췄다는 것.

○"돈 보냈는데 약이 오지 않는다"는 항의가 쇄도하자 김씨 등은 중국나라 등 인터넷 포털 카페로 옮겨가 "콘서트 티켓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찬스"라는 글을 올려 사기 행각을 계속하던 중 피해 신고를 받고 계좌 추적이 나선 경찰에 탐미.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축원룸매매(전대2분)**

4층 (용봉지구 미래A옆코너) 르까프 매장 뒷, 군산아구찜 앞

**룸21개**  
(1층상가 2칸, 4층 고급주택1개 옥탑)  
(엘리베이터완비, 정남향, 등기완료)

**월수익 880만**  
(1년 수익 1억5000만 발생)

**매가12억**  
(보2억 용3억 실투자 6억)

---

**신축원룸매매4층**  
(전대정문1분, 전대후문1분)

**룸21개**  
(1층 점포, 4층고급주택, 옥탑)

**월수500만**  
(1년6000만 수익발생)

**매가6억7천**  
(보4천 용1억2천)

(주)신한 010-6670-9800

**상가매매 · 오피스텔매매(수익성)**

- ▶북구 우산동 7층 상가건물매매 (우산동 구호전사거리 목욕탕)토지96평 건물 565평 월수800만(주인직접경영시 1000만발생)매가11억(보2억 용4억5)
-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층중 3층) 85평(신한은행 두시,모아엘가A 상가앞) 매가13억5천(보3천 용2억5)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엘스타빌딩)(4층중 3층) 62평(롯데마트 옆 서해남공 쪽) 매가 2억5천(보2천 월 120 용9천)
-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상오션스파)(8층중 2층) 62평(부영APT앞) 매가1억7천(보1천 월70 용9천)
- ▶나주시 삼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1억9천(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 ▶북구 산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쌍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원천역 1번 출구 2분  
(울수리 전제제분 신규교체 임대완료, 주인거주가능)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용1천)  
(울수리 전제제분 신규교체 임대완료, 주인거주가능) ②12평 매가3천5백(보200 월30 용1천)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면)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앞) 30평 매가 1억9천 할인가 → 1억5천(용 6천가능)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할인가 → 1억2천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

**신축원룸임대 (용봉지구 미래APT 옆)**

버스정거장 3분에 있음 신축 4층, 룸 21개 엘리베이터 완비, 정남향

**품목서 무료**  
32인치TV,세,냉,에, 인터넷, 유선 불박이, 신발장, 수도 무료제공

**첫입주자에게사은선물증정**  
원룸 보200 월30만/투룸 보300 월40만

---

**상가임대(수원지구, 북구)**

- ▶수원지구 3층 25평 임대(한솔빌딩)신한은행 뒷, 모아A 상가앞 보1천50만(시비없음)
- ▶수원지구 3층 62평(엘스타)롯데마트 옆, 허남공단 4번 쪽보2천 월120(분할가능)
- ▶수원지구 1층 18평(한도빌딩)대방 5차 APT후문앞보2천 월120만(시비없음)
- ▶북구 우산동 1층 80평(구호전사거리 무등장레스토랑) 보3천 월150만(식당, 카페, 당구장, 호프적합)
- ▶나주 삼영동 학원1층(70평)2층(60평)-상담후결정

(주)신한 010-6670-9800 / 062)952-5584

**(주)대신경매**

- 이제 경매로 시작해서 부자되세요
-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컨설팅 해 드립니다
- 건축설계, 건축시공, 리모델링(무료상담)

**근린시설/근린상가/근린주택 ▶ 수익성 물건**

- 동구 신수동 근린시설(대 275㎡ 건246㎡) 감정4억6, 최저 3억2, 투자적합
- 광산구 신항동 근린시설(대2000㎡ 건909㎡) 감정18억5, 최저10억4, 대로번 6차선
- 동구 대인동 근린시설(대183 건152㎡) 감정1억6, 최저6천9백, 대인시장대
- 북구 석화동 근린시설(대1123㎡ 건605㎡) 감정8억6, 최저4억8천, 각화시장부근
- 동구 충장동 근린시설(대713㎡ 건500㎡) 감정가11억, 최저4억9천7, 충장로5가
- 서구 양동 근린시설(대809㎡ 건1108㎡) 감정17억, 최저9억5천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대1094㎡ 건4489㎡) 감정가41억, 최저28억8, 금호월드옆
- 북구 신안근린시설(대951㎡ 건802㎡) 감정가26억, 최저14억8
- 동구 소대동 근린상가(대100㎡ 건272㎡) 감정2억2, 최저1억, 주거상가
- 동구 수기동 근린시설(대330㎡ 건1283㎡) 감정11억8, 최저5억3, 투자적합

**주 유 소/공장**

- 광산서봉동 주유소(대1821㎡ 285㎡) 감정가11억4, 최저8억2천, 영광도로
- 영암군 신희동 주유소(대918㎡ 건1292㎡) 감정가 26억4 최저18억4

**APT/주택/빌딩**

- 광산구 신항동 APT(대지62㎡ 건125㎡) 감정가2억5, 최저1억7천, 주거문화
- 남구 봉선동 APT(대지32.58㎡ 건59.4㎡) 감정가 8천9백, 최저3천9백2 주거문화
- 북구 중흥동 주택(대지254㎡ 건235㎡) 감정가 2억, 최저1억5천, 전남대 부근
- 상무지구 정면오피스텔 임대 3층 30㎡ (보조금 2천, 월120만) 매매가능 내부 인테리어 시설 무료제공

**대지/토지**

- 동구 계림동 대지(대지511㎡) 감정가6억9, 최저4억9천, 광주고 바로 앞
- 동구 충장동 대지(대지298㎡) 감정가5억, 최저2억2천, 충장로 유동인구 많음
- 광산구 소촌동 대지(대지1956㎡) 감정가20억, 최저20억, 광송간도로 송정역
- 광산구 송정동 대지(대지72.9㎡) 감정가1억2천8, 최저9천, 코너토지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임대 6층 48평(보조금 1천, 월80만) 매매가능

**오피스텔 및 특수물건**

-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골든오피스텔(대428㎡, 건1907㎡) 감정 3억5천 최저 1억6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205㎡, 건75㎡) 감정 1억 최저 4천5백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대32.8㎡, 건119.3㎡) 감정 1억4천3 최저 6천4
- 북구 신안제일오피스텔 (대5.81㎡, 건21.7㎡) 감정 3천9백 최저2천7백9십
- 서구 치평 수림 오피스텔(대7.6㎡, 건44.1㎡) 감정 6천1백 최저4천9백

**건축시공 설계부터, 임대 매매 리모델링까지 책임지고 무료상담해드립니다.**

**경매 함께 가족처럼 같이 공동하십시오**

상가, 대지, 근린시설 주택, APT, 전문취급함

010-6832-9700 / 062)512-8080